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향후 과제

I. 논의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급격한 학령기 인구수의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직결되는 결과를 가져옴.
 - 대학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음. 대학은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 등의 역할을 통하여 대학이 속한 지역 및 국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기에 현재 가속화 되고 있는 대학 신입생 충원을 감소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임. 신입생 충원율의 감소는 대학의 존폐 위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임.
-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신입생 충원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일 뿐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부족한 신입생을 대신할 방안일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 고등교육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한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해외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가능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먼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유학생 유치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을 학위과정별, 주요출신국가별, 지역별, 주요대학별 등으로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정책 및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논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II.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개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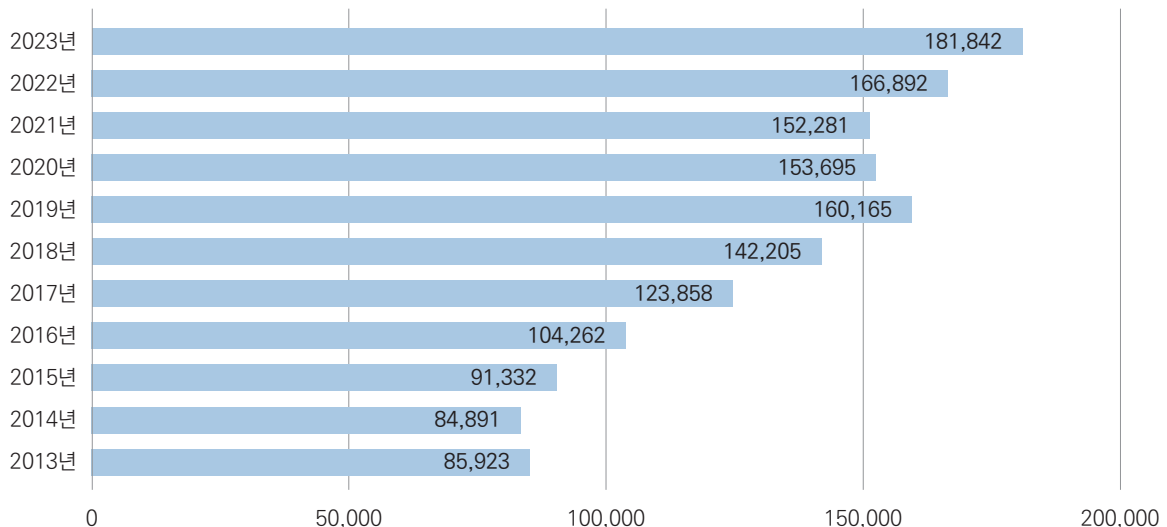
- 개별 대학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유입된 것은 훨씬 전이지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2004년 'Study Korea Project'(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부터임. 이는 국내 대학의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유학생을 통해 우리나라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정책임.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췄으며, 그 결과 단기간에 해외 유학생의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옴. 2004년에 발표된 'Study Korea Project'는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 유치를 목표로 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시도한 최초의 유학생 유치 전략 정책이라는 의미가 있음.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03년 12,314명에서 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 2010년에 83,842명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국가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가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201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를 도입하여 국내 대학의 유학생 관리 및 모범 기준 사례 확보 및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제도화 시키려 노력함. 이 제도는 2005년 시작된 ‘Study Korea Project’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나 중도탈락 문제, 국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의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 됨.
-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는, 질 관리 미흡 문제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들 안에서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었음. 이에 IEQAS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 제도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일정 기준을 갖고 평가하여 대학에 정부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2012년 정부는 처음 목표했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양적 성장에 도달하게 되자 ‘Study Korea 2020’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유치를 목표로 ¹⁾정부초청장학사업 GKS(Global Korea Scholarship)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려 노력함.
- 2014년에는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대학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 입국 사증 발급 간소화를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시간제취업 시간의 확대를 추진함.
-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유치 목표는 2023년으로 연장하여 목표기한을 수정하였고, 2023년 8월 정부는 ‘Study Korea 300K Project’(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를 발표함.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개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유학생 취업연계 강화 및 우수인재 정주 지원 강화 등이 담겨있음.

Ⅲ. 외국인 유학생 현황

1. 최근 10년간 외국인 유학생 현황



[그림 1] 외국인 유학생 현황(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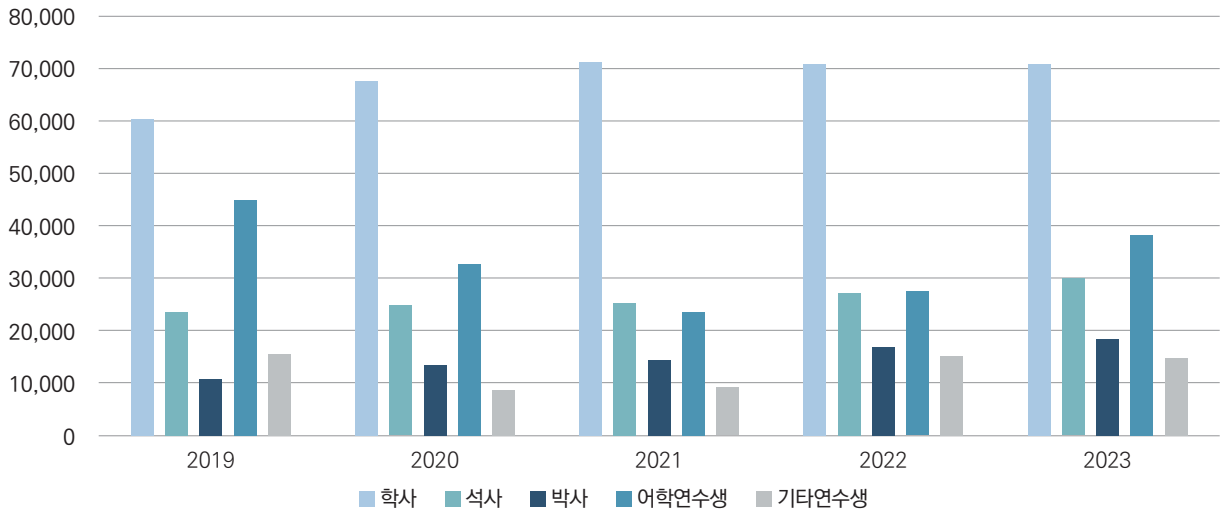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서비스.

1) GKS는 1967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써 우수한 유학생을 초청하여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장학제도임

●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외국인 유학생 추이

-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함. ‘Study Korea Project’ 시행 8년 차인 2013년 국내 유입 유학생 수는 85,923명이었으나, 2023년 외국인 유학생 수는 181,842명으로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함. 2020년과 2021년 유학생 수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해당기간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2.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최근 5년)



[그림 2]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별 현황(2013-2023)

<표 1>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별 현황(2013-2023)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학위과정	학사	60,688	68,051	71,540	71,060	71,084
	석사	23,605	24,996	25,169	26,923	30,012
	박사	10,782	13,156	14,252	16,892	18,141
비학위과정	어학연수생	44,756	32,315	23,442	27,194	37,974
	기타연수생	15,194	8,377	8,821	14,895	14,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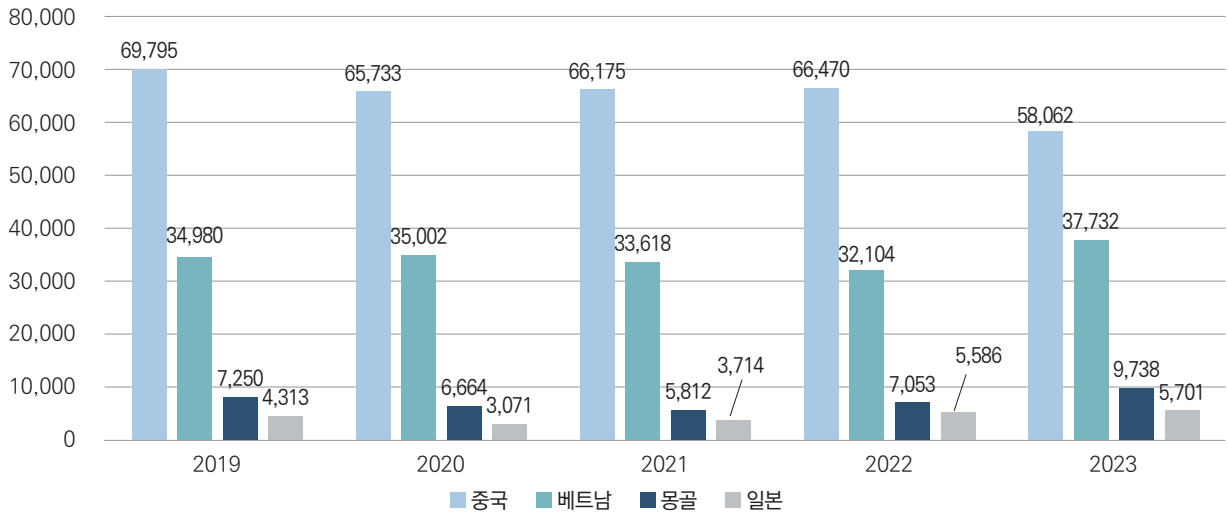
주. 비학위과정 기타연수생에는 교육과정공동운영, 교환학생 및 방문연수생 등이 포함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서비스.

● 최근 5년간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별 현황

- 지난 5년간 국내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에 각각 60,688명, 23,605명, 10,782명이었으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던 2020년과 2021년에도 유학생 수는 줄지 않았음. 반면, 비학위 과정의 경우는 2020년과 2021년에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음. 그러나 팬데믹이 안정화에 접어들기 시작했던 2022년부터는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유학생 모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함.



3.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 현황(최근 5년)



[그림 3]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 현황(2019-2023)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서비스.

● 외국인 유학생 출신 국가

- 지난 3년간 국내 대학으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베트남, 몽골, 일본이 다수였음. 중국 및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은 2023년 기준으로 각각 58,062명, 37,732명이었으며 이는 2023년 전체 유학생의 32%,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두 국가의 유학생의 비율은 전체 국내 외국인 유학생 50%를 넘는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음.

4.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

<표 2>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은 상위 5개교(2023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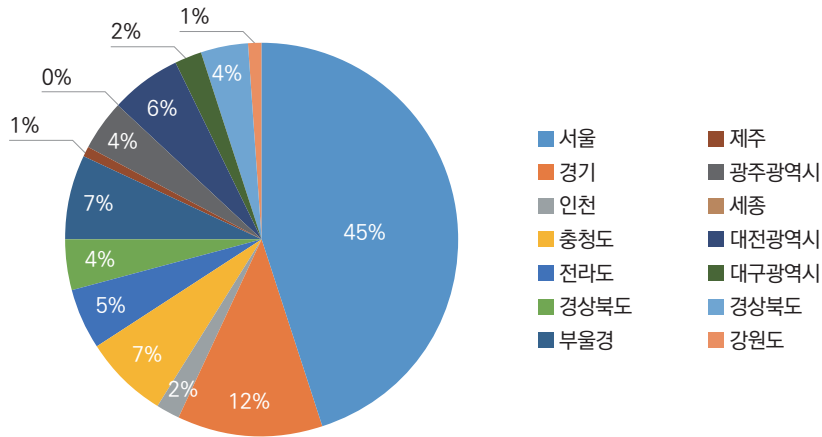
대학명	한양대	경희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학위과정	소계	4,689	4,636	2,752	3,928	3,389
	학사	2,383	1,923	1,172	2,226	2,210
	석사	1,623	2,405	1,177	1,276	895
	박사	683	308	403	426	284
비학위과정	소계	1,923	1,759	2,213	1,544	1,091
	어학연수생	1,254	1,048	1,281	360	684
	기타연수생	669	711	932	1,184	407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3), 기본교육통계.

●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

- 국내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대학의 특성 및 강점을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진행하고 있음. 그 중 한양대, 경희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는 2023년 기준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대학임. 위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 홍보, 중도이탈 방지 대책, 정주 여건 개선 및 취업 연계, 외국인 유학생 전담지원팀 구성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노력 하고 있음.

5.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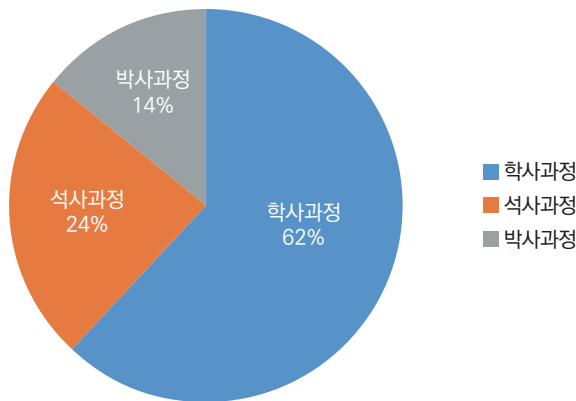
[그림4]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수

주1. 각 지역별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임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통계서비스.

● 2023년 기준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수

- 2023년 기준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재학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대학에 전체 유학생의 45%, 경기도 소재 대학에 12%, 충청도와 부울경 소재 대학에 7%, 대전 소재 대학에 6%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음.(서울 소재 대학 및 경기 소재 대학에 전체 유학생의 57%가 재학 중)

6. 학위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3년 기준)



[그림 5] 2023년 학위별 외국인 유학생 수

주. 전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학위별 비율임.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통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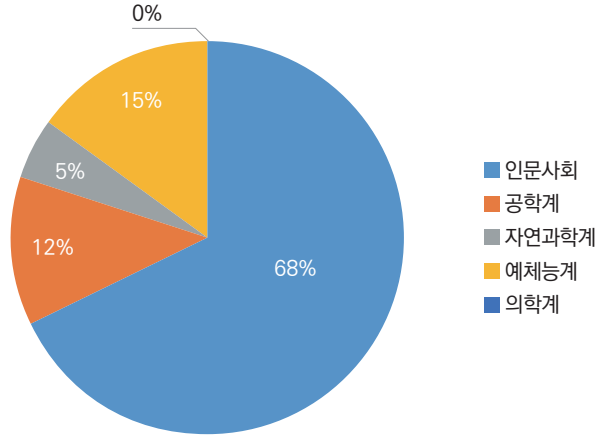
● 2023년 기준 학위별 외국인 유학생 수

- 2023년 기준 학위별 외국인 유학생 수는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62%,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24%, 박사과정 유학생이 14%임.



7. 전공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3년 기준)

- 2023년 기준으로 전공별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전체 68%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가 15%, 공학계가 12%, 자연과학계가 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그림 6] 전공별 외국인 유학생 수

주1. 전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전공별 비율임.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통계서비스.

IV. 시사점 및 제언

시사점

-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까지 유치하겠다는 ‘Study Korea 300K Project’ 정책 발표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학령기인구수 감소가 가져올 지방대 운영의 어려움(줄어든 대학 재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함. 교육부는 지방대의 운영 어려움과 지역소멸의 위기를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대는 이러한 국내 대학이 현재 겪고 있는 신입생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해외의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앞서 언급되었듯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대학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유학생 재정 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 허용,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검토, 유학생 비자 관련 규제 혁신 및 우수인재 정주지원 강화 노력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 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
 -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유학생들이 한국대학에서 한국어 사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현재 교육부는 대학과 대학원 입학 시 TOPIK 3급이상을 제출하고 졸업할 때는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음. 그러나 실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한국대학에서 수업을 듣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이 한 걸 수월해 질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의 학업 성취가 제대로 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음. TOPIK 등급별 평가기준에 의하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업을 큰 어려움 없이 듣기 위해서는 최소 4-5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음. 외국인 유학생의 이러한 문제는 수업을 함께 듣는 국내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일 미치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대학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 비율은 2023년 기준 48.2%로 50%를 넘지 못하는 수준임(한국대학신문, 2023).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질관리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및 중도탈락율 문제

- 외국인 유학생의 대거 유입은 유학생의 질적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으로 인하여 유학생 수는 확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만큼 불법체류 유학생 및 중도탈락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2023년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 수는 전체 유학생 수의 17%임(법무부, 2023). 정부가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그 인증제를 획득한 대학에게는 유학생 비자 발급 간소화 혜택을 주고 있지만, 불법체류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또한 중도탈락률도 2021년엔 6.6%, 2022년엔 7.11%, 2023년엔 7.05%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법무부, 2024).

●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권 쏠림현상

-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지방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소멸을 막는데 그 큰 목적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한 것은 관련 대책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함. 정부차원에서 지방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ex.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획득에 대한 완화 조치 검토 등). 앞서 언급되었듯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국내 학생들의 선택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 서울소재 대학에 전체 유학생의 약 46%가 재학 중에 있음. 활발한 한류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단순한 학위 취득을 넘어서 한국문화의 경험을 위해 한국을 선택하는 유학생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음.

제언

●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여건 개선

- 우수한 해외 인재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유학생이 국내 대학 졸업 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함. 국내 대학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협업과 더불어 대학과 산업계의 중장기적인 협력이 요구됨. 또한 개별 대학 차원에서의 외국인 유치 노력과는 별개로 정부가 우수한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지역별로 큰 편차 없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장학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우수한 유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올 경우, 그들의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원한다면 국내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규정 및 방안이 보다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간소화 및 관련 규제 완화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화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 시 외국인 유학생이 갖춰야 할 재정능력의 기준을 완화하고, IEQAS의 평가결과 인증을 받은 대학(유학생 선발 및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대학)에 한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비자발급 간소화 정책 및



재정능력 기준 완화 정책은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나,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이 높아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구사능력 강화

-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학업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대학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되어야 함. 앞서 기술되었듯, TOPIK 기준의 완화는 유학생들이 대학 강의를 큰 무리 없이 들을 수 있고,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어 구사 능력 요구 기준을 하향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학업 중도 이탈 및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됨.

참고문헌 및 자료

교육부(2023.8).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보도자료.

김준환(2023.7.3.).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역소멸의 대안...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강화 필요,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9141>.

법무부(2024.3.20).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36.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main.do>.